

FTA 농수산물분야 협상동향 자료 (요약)

□ 한-콜롬비아 FTA

- '09.12월 한-콜롬비아 FTA협상개시후, 현재까지 4차례 전체협상과, 3차례 회기간 회의 개최 /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(9.14-16)시, 양국정상간 FTA 연내 타결 합의 / 금년 상반기중 타결 및 가서명 목표로 추진중
 - 상품양허 : 수입액 기준 양허수준의 비대칭성 및 핵심품목의 양허제외 또는 장기철폐 견지로 인해 그간 교착상태
 - (콜롬비아측) 자동차에 대한 보수적 양허입장 유지
 - (아측) 쇠고기, 낙농품 등의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보수적 입장 유지
 - '11.10월 제5차 협상시, 양측 핵심품목의 양허요구안 교환
 - (콜롬비아측) 쇠고기, 낙농품, 닭고기, 과일류, 화훼, 커피, 설탕, 주스류 등에 대해 개방확대 요구
 - (아측) 자동차, 자동차부품, 전자제품, 타이어, 플라스틱 등 에 대해 콜-미/콜-EU parity(동일) 수준을 요구
 - 상품협정문 : FTA 협정문은 상당수 문안에 합의하고, 분야별 소수쟁점만 남은 상황
 - (콜롬비아측) 수출보조금, 농업세이프가드 등을 다룰 별도의 농업섹션 구성을 주장하나, 아측은 반대입장 표명
- 향후 추진계획
 -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최소화 대응, 최종협상타결 가능성에도 대비
 - 콜측 양허요구 쇠고기등 축산물에 대해서 보수적 대응
 - 커피, 열대과일 등 상업적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콜측 양허요구 감안

□ 한-호주 FTA

- '09년3월초 VIP호주 방문시 협상개시 선언이후 최근('11.1월)까지 5차례 공식 협상 및 소규모 회의 개최 / '11.11월 양국정상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기로 합의
 - 일부 쇠고기, 낙농품/쇠고기 양허수준 및 ISD(투자자, 국가간 분쟁해결제도) 포함여부 등 일부 쟁점이 남아있는 상황
 - * (호주측) 관심품목이 쇠고기, 낙농품 등 축산물에 집중

○ 향후 추진계획

- (쇠고기) 협상 이익균형, 국내 한우농가 우려 등 제기하면서 보수적입장에서 신중하게 대응, 한미FTA와의 차별화 필요성 적극 설명
 - * (호주측) 한미FTA 수준(15년+농수산물세이프가드) 시장개방요구
- (낙농품) 호주의 높은 가격경쟁력, 우리나라농업의 어려운 여건, 기체결 FTA에서의 TRQ물량 등을 감안, 호주측의 과도한 요구 수용곤란 입장 대응
 - * (호주측) 탈·전지분유, 치즈, 버터등 낙농품에 대해 현재의 수입 시장 점유율에 준하는 저율관세할당(TRQ) 요구

□ 한-터키 FTA

○ '10.3월 협상개시후 3차례 공식협상 및 3차례 회기간 협상을 거쳐 현재 마무리 단계

- '12.1월, 상품분야에 국한된 소규모 회의에서 최종협상타결을 고려한 양허 구상안을 교환하고 상당부분 입장차를 좁힘.
 - * 농산물 : 민감품목을 제외한 낮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공감대를 가졌으며, 핵심관심품목에 대한 양허협상만 남은 사항
 - * 터키측 : 올리브유, 잎담배, 견과류, 다량어 등에 대해 양허개선요구
- 터키와 외교 및 경제적인 협력이 부각되면서 한-터키 FTA협상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전망 / 금년 상반기내 타결기로 합의

○ 향후 추진계획

- 금년 상반기 상품분야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으며, 차기협상은 2월말 개최예정
 - * 터키내 농수산분야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여 낮은 수준의 협상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

□ 한-중 FTA 추진대비

- 한-중FTA 민간('05.3-'06.11) 및 산관학 공동연구('07.3-'10.5)
- 한-중정상회담('12.1.9) 계기에 양국은 한-중FTA의 조기추진 필요성 공감, 공식협상에 필요한 국내절차 추진
 - * 국내절차(FTA체결절차규정, 대통령훈령) : 관보게재(외통부) → 공청회(관보게재 14일후) → FTA추진위원회(필요시) →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

○ **외통부 공청회 개최계획 관보게재(2.9)**

* 일시/장소 : 2.24(금), 1000:-17:00, 코엑스 컨벤션센터 3층 홀E

○ **중국의 특수성 및 국내 농어업여건**

- (농업 교역상) 중국은 농어업대국이면서 우리 농어업과 생산체계가 유사하고
가격경쟁력이 높아 여러 품목에 걸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
으로 전망

* 중국산 수입비중 : 농산물 수입의 14% / 수산물 수입의 30%

* 수산물 : 어장이 좁하여 다양한 어종에 영향을 미치고, 국내 활어시장도
피해 우려

- (사회주의국가 특성)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자유시장경제 국가에 비해
상대적으로 투명도가 낮고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

* 토지 국유제 : 생산비용에 반영미약, 국가통계 폐쇄적, 신뢰도 낮음.

○ **향후 추진계획**

- 협상개시 가능성에 대비하여 농어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 강구

* 농어업 등 '민감성 처리방안'에 대해 우선 합의를 도출할수 있도록 협의

- 농어업계 의견수렴 및 협상전략 마련을 위한 소통강화

* 생산자대표, 이해관계자,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품목별 전문가협의회 개최중

□ **한-중-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**

○ 3국간 FTA의 민간공동연구('03-'09,7년간)후, 3국 정상회의에서 산관학
공동연구 단계로 격상 합의('09.10.10/ 북경)

○ '10.5월 서울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'11.12월 제7차 회의에서 산관학 공동
연구 공식종료

○ '12년에 각 국별로 협상개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

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 결론(요약)

○ 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, ② WTO 규범과의 합치성, ③이익의 균형 및,
④ 민감부문에 대한 고려 등 향후 한·중·일 FTA 협상에서 고려해야할 4가지
원칙 제안

○ 보고서는 3국간 FTA가 실현 가능하며, 3국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
으로 전망하면서, 3국 정부에게 FTA협상방향 결정 및 행동계획 발표 권고

○ 공동연구결과를 3국 경제통상장관회의와 외교장관회의를 거쳐, '12년에 개최되는
3국 정상회의에 보고예정

* 보고서 전문, '12년 3국 정상회의 개최전에 공개예정

○ **향후 추진계획**

- 농수산물분야는 중국이 비교우위인 점을 감안, 체계적, 전략적 대응으로 민감성 반영 노력

□ **한·베트남/인도네시아 FTA협상 동향**

○ (동향) 추가적 시장개방을 위해 아세안국가중 베트남, 인도네시아와 양자 FTA 추진중

- (베트남) 공동연구 완료('11.10), 아세안+3정상회의('11.11)계기 공식채택
- (인도네시아) 공동연구 완료('11.10), 국내절차 추진 합의
 - * 국내절차인 공청회 개최 : 한국('11.11), 인니('11.12)
 - * 한-인니 CEPA : 3월중 협상개시 선언 전망
 - * 농산물 : 열대성농산물로서 국내농산물과 경쟁 미미
 - * 수산물 : 오징어, 멸치, 새우, 꽃게 등 한국의 다수 수산품목들에 영향 전망

○ (향후추진계획) 민감한 농수산물의 경우, 투자확대, 능력배양 지원등을 활용하여 개방수준이 최소화 되도록 대응

- 수산분야 피해우려 품목 : 수산협력 확대 등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협상 전략 추진

□ **한-일 FTA**

○ '03.10월 협상개시 선언후 6차례 협상을 개최하였으나, 일본측의 소극적 태도로 '08년초까지 냉각기 유지

○ '08.4월 정상회담시 협상재개 검토 및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실시에 합의, 6차례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으나 진전이 없는 상황

○ 농수산물분야 주요쟁점

- 일본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
 - (아측) 일본측의 공식적, 전향적 입장변화가 있어야만 협상재개가능
 - (일측) 개방수준이나 비관세장벽 개선여부는 정식협상 개시후 논의가능, 우선 협상을 재개 요구
- 일본 비관세장벽 개선
 - * (수산물 수입쿼터:IQ) : 김 등의 수입물량 제한 규제철폐
 - * 신선농산물 수출시 적용되는 SPS조치 완화
 - * 돈육차액 관세제도 완화

○ 향후 추진계획

- 주요쟁점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변화 여부, 기타 FTA(한중일 FTA등) 및 TPP 동향을 감안하여 협상의 재개 여부를 판단

□ **한-뉴질랜드 FTA**

○ '10년 5월 제4차 협상에서 기교환한 상품 리퀘스트에 대한 입장표명, 분야별 통합협정문을 기초로 논의

- (뉴지측)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목표로 양허 수정안 교환 제안
 - * 농수산물 1,639품목의 전부에 대해서 리퀘스트 제시
- (아국측) 뉴지측의 리퀘스트에 강한 불만 표시, 이를 기초로 한 논의 및 양허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대응

○ 향후 추진계획

- 제5차 협상은 미합의
 - * (아국) 뉴지측의 과도한 요구수준의 완화등 모멘텀 마련된 후 협상가능 표명
- 향후 뉴지측 입장변화 등 고려, 신중대응

□ **한-미 FTA 이행협약 및 발효**

○ '11.11.22 한미FTA 국회비준이후 한미FTA 발효를 위한 양국간 이행협약 추진

○ '12.1월, 한미FTA 농어업 추가 보완대책 마련

- * 농어업 지원을 위해 '11.8월 대책('17년까지 지원규모 22.1조원)에 2.0조원 추가하여 증액 지원

○ 향후 추진계획

- 한미 양국의 국내이행법령 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한미FTA가 발효될 예정.
끝.